

다니엘서 - 번호 116

징벌의 때를 드러내다: 예레미야의 경고와 마지막 세대에 대한 예언적 탐구

Jeff Pippenger

2024-03-04

우리는 이전 글에서 예레미야 50장을 살펴보고, 그 본문에는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집행 심판은 주의 보복의 날이며, 이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으로 표상되었다. 서기 70년에 로마가 감행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보다 앞서 느부갓네살이 행한 예루살렘의 파괴로 예표되어 있었다. 이 둘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이기도 한 두로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어 현대 바벨론에 대한 주의 보복이 성취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날들에,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불의를 찾으려 하여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 둔 자들을 용서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14만 4천의 인침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 사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상의 틀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들은 하늘의 틀을 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칙령이 나가고 인침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증언, 5권, 216쪽.

집행 심판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음성은 남녀에게 바벨론에서 도피하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날이 이르렀고, 그들의 징벌의 때가 왔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피한 자들의 목소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원수 갚으심, 그의 성전의 원수 갚으심을 선포하도다. 바벨론을 대적하여 활 쏘는 자들을 함께 부르라. 활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사방으로 그것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중 아무도 피하지 못하게 하라.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 주며, 그가 행한 모든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녀의 심판은 ‘활 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활 쏘는 자에 대한 첫 언급은 이스마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다. 그녀는 가서 병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셨고, 그는 자라 광야에 거주하며 궁수가 되었다. 창세기 21:17-20.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는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 로마의 음녀에 대한 집행적 심판의 시작을 가리킨다. 그 ‘때’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르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다. 교황권의 표(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표(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슬람의 궁수들이 쓰임받는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관한 제자의 질문들에 답하시면서, 마지막 날들의 역사도 나타내는 역사적 서술을 제시하신다. 그는 '원수 깊은 날들'을 언급하시는데, 이는 메시아이신 그의 사역의 본질적인 예언적 속성이었으며, 나사렛의 교회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 자신의 사역 개시를 선언하실 때 그가 이를 밝히셨다. 나사렛에서의 그 선포와 이사야의 그 구절은 그의 사역뿐 아니라 제자들의 메시지, 더 구체적으로는 십사만 사천 운동의 일과 사역도 대표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에게 자유를, 맏인 자들에게 감옥 문이 열림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여 그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된 황폐함을 다시 세우며, 옛날의 폐허를 일으키며, 수대에 걸친 황폐한 성읍들을 보수하리라. 이방인이 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일 것이요, 타국인의 자손이 너희 밭을 가는 자와 너희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으리라. 너희의 수치 대신 배나 얻으실 것이요, 치욕 대신 그들의 뉘트로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배나 소유하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하고, 번제물을 위한 강탈을 미워하며,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씨를 이방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겠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나를 감싸 주셔서,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단장하듯,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듯 하게 하셨음이라. 땅이 그 싹을 돋게 하고, 동산이 그 가운데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11.

에스겔 9장에서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은 교회와 세상의 죄악을 두고 애통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의의 나무들”이 되는 때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날들과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들이 곧 인침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오랜 폐허를 다시 세우며,” “옛 황폐한 것을 일으키며,” “대대로 황폐한 성읍들을 보수할”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다.

큰 지진의 때에 그들이 기호로 들려질 때, 십사만 사천인의 의는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들의 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땅이 그 싹을 내고 동산이

그 가운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십사만 사천에 대한 인침은 2001년 9월 1일, 늦은 비가 임했을 때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땅의 싹들이 돋아났다. 이사야는 그 싹이 언제 돋아나는지를 밝힌다.

분량대로, 그것이 싹이 돋을 때에, 네가 그것과 다투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정결케 될 것이요, 이것이 그의 죄를 제하여 버리는 모든 열매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돌처럼 만들 때에 수풀들과 형상들은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27:8, 9.

그분이 자신의 거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동풍의 날에, 비가 헤아려질 때 싹이 트기 시작할 것이다. "Stayeth"는 "억제한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7장의 네 천사에 의해 네 바람이 억제될 때,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시작된다. 그때 그 구절의 "measure"라는 말이 "절제"를 뜻하므로, 늦은 비는 절제 가운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 기간의 시작에는 늦은 비가 절제되어 내리지만, 그 기간의 끝에는 한량 없이 내린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의 위대한 부어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아는, 깨우침을 받은 백성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인, 전심의 헌신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기심과 자기 방종이 이렇게까지 드러나 있을 때, 곧 말로 표현하면 가인의 대답,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할 만한 정신이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 주실 수 없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사방에서 짙어지며 만물의 끝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표징들이,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잠든 활력을 깨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까지 비쳐 온 빛에 비례하는 어둠이 이 영혼들을 덮칠 것이다. 최후의 결산의 그 큰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변명의 그림자조차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행하고, 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실과 동정심과 열성을 통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능력과 실재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내세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7월 21일.

늦은 비와 14만 4천의 인침을 위한 시험 기간은 성령의 부으심을 측량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밀과 가라지가 추수의 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비는 두 부류를 모두 성숙하게 하고, 시험 기간의 끝에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며, 그때 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거친 동풍의 날'은 2001년 9월 11일에 도래했으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가리키는 기별과는 반대되는 늦은비 기별의 가짜 평안과 안전 메시지를 둘러싼 하박국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때 알곡도 가라지도 싹을 틔우고,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의 심판에서 드러내 보일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여, 이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복음의 사업이 완결되면, 곧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의 분리가

뒤따르며,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123.

한 무리는 에스겔 8장에서 해에게 절하고, 다른 무리는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14만 4천을 지목하시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나타내는 표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 인식해야 할 표적을 알려 주셨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황폐함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보응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20-22.

예수께서는 ‘한 줄 한 줄씩’ 그 징조의 더 많은 예언적 특징들을 밝혀 보이셨다. 이는 그의 말씀이 누가뿐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도록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14-16.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미리 생각해 두지도 말라. 오직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임에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10-14.

‘복수의 날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인 마지막 일곱 재앙이 두 부류에게 임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의 기별은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법의 때에, 14만 4천 명이 기치로 높여질 때 열국에게 주어진다. ‘복수의 날들’은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는 미국의 일요일법으로 시작하여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간의 은혜 시기가 닫히며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쏟아질 때 끝난다.

그 기간은 마가가 언급한 "한 시간"이며, "큰 지진"의 "한 시간"이고, 열 왕이 그들의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에 넘겨주기로 동의하는 "한 시간"이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복음을 마지막 영혼이 받아들이면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공허 없이 쏟아진다. 그 기간은 기치가 들려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기치를 통해 선포되고 전파되고 공표된 복음 메시지에 마지막 사람이 응답할 때 끝난다. 그 기간이 바로 "원수 갚는 날들"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그 역사적 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니, 곧 자신의 재림 전에 죽지 않을 마지막 세대를 지목하신다. 그분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표현되는 한 징조를 지목하신다. 그 징조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마땅히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으며", 동시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이다.

서기 66년에 케스티우스가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떠나 도망쳤고, 화이트 자매는 그 파괴가 결국 서기 70년에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았다고 밝힌다. 케스티우스는 포위를 시작한 뒤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채 철수했고, 도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징과 관련된 경고에 따라 도피했다.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다시 포위를 단행해 파괴를 마무리했다. 케스티우스의 포위는 이른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시작이었고, 티투스가 단행한 포위와 파괴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끝이었다.

전체 역사는 3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포위로 시작하여 포위로 끝났으며,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표징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의 날들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사역에서 특별히 밝히셔야 할 요소였다. 그 날들은 곧 임할 일요일 준수법령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마치는 로마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을 대표한다.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집행 심판의 시작에 14만 4천이 표징인 기치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가 그 표징을 볼 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표되었던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

다음 글에서 누가복음 21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